

**특집논문**    **근대 공간의 합리성과 비공식성**

##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

The implications of discussion of urban informality  
for street vendor research

황진태\*\* · 권규상\*\*\* · 조영지\*\*\*\*

본 연구는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인 공식부문으로부터 단절된 비공식부문의 일부로서 노점상을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점상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urban informality)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분법을 교란시키고, 비공식성이 공식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형태와 공간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했음을 강조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정체된 노점상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점상과 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정책가의 시선에서 노점상은 공공 공간에서 사라져야할 정책의 대상이었고, 공간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거시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식부문으로부터 배제의 결과로서 노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점상의 도시지리에서 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만 인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점상이 구체적

\* 본 연구는 지난해 겨울 광화문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도시 비공식성 세미나를 계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여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셨던 동료학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날카롭지만 생산적인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 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551).

\*\* 교신저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dchjt@naver.com)

\*\*\* 한국과학기술원 조천식녹색교통대학원 박사 후 연구원(kks1104@gmail.com)

\*\*\*\* 서울대 지리교육과 석사(wemayyet@naver.com)

인 장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제도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관을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하고자 한다.

주요어: 도시 비공식성, 비공식부문, 비공식경제, 발전주의적 도시화, 노점상

## 1. 서론

본 연구는 공식부문으로부터 단절된 비공식부문의 일부로서 노점상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노점상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흔히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노점상을 세금은 안내고, 불법적으로 거리를 점유하는 비합법적 상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공공 공간인 거리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정책의 대상으로 본다. 반면에 빈민운동과 진보언론에서는 노점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다수 노점상들이 빈곤층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노점활동을 위한 공간의 점유를 정당화하고 있다(엄정윤·김승현, 2010; 김준희, 2011; 주간경향, 2014).

흥미롭게도, 대립되는 두 입장은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바로 노점상은 공식부문으로부터 단절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 속한다는 시각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효과적인 운영이 국가경제의 성장으로 직결된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에서는 조세<sup>1)</sup>가 어렵고, 공식경제의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을 비공식부문으로 보고 있으며, 노점상 또한 ‘노점상은 불법적으로 거리를 점유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

1)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시했던 것은 조세를 늘리기 위한 국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례다.

식부문'이라는 사회에 만연된 인식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면서 자신들을 공식부문과는 무관한 비공식부문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학술연구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국면과 맞물리면서 노점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제3세계의 노점상들을 설명하는 도시비공식부문론이 국내 연구에서도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당시 도시비공식부문론이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단절적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인식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었지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는 논의는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전되지 못한 실정이다(정진화, 1987).

국내 노점상연구에 영향을 미친 국외에서 진행된 초기 비공식 경제 연구는 1970년대를 전후로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었다(Hart, 1970, 1973; Tokman, 1978). 특히, 남미 도시에서의 비공식 경제 연구는 경제나 도시개발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적인 관점에서 도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했다(AlSsayyad and Roy, 2004). 하지만 초기에 진행된 남미에서의 비공식 경제 관련 논의는 비공식과 공식경제 사이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전제로 하는 비공식 부문(sector)에 기반을 둔 접근 방식으로 인하여 비공식 경제와 공식 경제 사이의 연결성과 관련 행위자들 사이에서 맺어진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공식/비공식부문의 이분법적 인식은 현실세계에서 '노점상은 세금을 안내는 불법적 상행위자'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유지, 강화시키고,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용역강패를 동원한 노점상 철거와 정부의 단속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갈등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엄정윤·김승현, 2010; 최인기, 2012).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아난야 로이(Ananya Roy), 네자르 알사야드(Nezar AlSsayyad) 등이 제시한 '도시 비공식성(urban informality)'(Roy, 2005; AlSsayyad and Roy, 2004) 개념에 주목한다. 로이는 기존의 공식/비공식부문의 이분법이 비공식성을 가난과 동일시하며, 비공식성을 지구적 자본주의와 무관한 현상으로 인식시키고, 가난의

책임을 빈민들의 문제로 전가시키면서 국가를 비롯한 제도들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로이는 공식/비공식부문의 이분법적 인식이 담겨져 있는 ‘비공식부문’ 용어를 철회하고, 비공식부문이 상이한 경제, 공간들과 상호 연결되었음을 강조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을 제안한다. 이 개념은 한국의 노점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에서 645명의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점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업실패(37.3%), 해고에 따른 실업(22.3%), 이농(21.9%), 지병(18.3%), 기타(0.2%)로 밝히고 있다(민주노점상전국연합, 2014: 5).<sup>2)</sup> 즉, 공식부문으로부터 이탈된 사업가, 노동자들의 노점상으로의 유입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면서 비공식부문과 공식부문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유용성은 공식부문으로부터 비공식부문으로 인력이동을 수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 개념은 공간적 측면과도 긴밀히 관련된다. 도시비공식부문론은 종속이론 등의 불균등발전론에서 차용했던 제1세계/제3세계 혹은 대도시/농촌 간의 구도 속에서 노점상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실제 노점상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분석의 칼날은 무디었다. 또한 노점상을 자본주의 동학의 결과물로 간주하면서 노점상이 발생하게 된 정치경제적 과정에서 그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취급해 왔다. 본 연구자들은 로이가 인식론적으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기존 논의는 어떻게 노점상과 이를 둘러싼 구조와 행위자 간의 경합에 따라서 공식/비공식부문 이분법이 교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구적 스케일(scale)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나 국가의 도시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 도시 내부에서의 다양

2) 참고로 2006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점상을 하게 된 동기로 사업실패(20.5%), 해고에 따른 실업(10.3%), 생계유지의 어려움(18.1%), 직장을 구하기 어려움(19.6%)으로 나왔다(최인기, 2012: 217).

한 행위자들(가령, 도시정부 공무원, 정치인, 사회운동세력 등) 간의 협력, 갈등, 타협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적인 노점상의 도시 지리가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노점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공간과 장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Hwang, 2014: 83). 이러한 필자들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바야트(Bayat, 2004)도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을 국가권력 혹은 자본주의의 일방적인 희생양이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만들어 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역동성에 주목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은 본문의 사례연구에서도 살펴보듯이 한국의 비공식 경제 행위자를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불과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동안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강한 국가의 국토 및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Hill and Kim, 2000; 황진태·박배균, 2012). 이를 ‘발전주의적 도시화(developmental urbanization)’로 명명할 수 있다. 발전주의적 도시화는 짧은 시기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민총소득으로 재현되는 국민의 삶의 향상을 가져왔다. 하지만 높은 국민총소득 수치 이면에는 ‘조국근대화’, ‘세계화’, ‘선진화’ 등의 성장담론의 미명하에 금융 및 건설자본의 이해관계가 긴밀히 연동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도시빈민들의 공간은 필연적으로 축소되는 그늘도 존재한다. 오늘날, 발전주의적 도시화를 가능하게 한 정치체제인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분권화를 통하여 상당부분 약화되었지만, 다른 사회세력에 비하여 기존의 지배적 사회세력의 이해관계의 우위가 완전히 역전된 것은 아니다. 본문의 사례연구에서 확인하겠듯이 지배적 사회세력은 ‘거버넌스’, ‘참여’ 등의 의사결정 기제를 이용하여 좀 더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다. 공간생산을 둘러싼 지배적 사회세력의 축수가 다양해진 것은 지배적인 사회세력이 주변부 개인 및 집단들과 더욱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로부터 주변화된 것으로 인식되어온 비공식식부문의 이해당사자들이 국가와 자본 주도의 공간생산에 순응하는 수

동적 객체이기보다는 다양한 공간적, 비공간적 경합을 통하여 이들의 이해관계가 국가와 자본의 공간생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 비공식성 개념에서 공간적 사고의 필요는 단순히 노점공간의 생산에 있어서 노점상을 수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책의 측면에서는 노점상이 공공 공간인 거리를 불법적으로 점유한다는 존재론적 사실이 도시정치, 도시계획을 다루는 정부관료, 정치인, 전문가들로 하여금 노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게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국내에서 1980년대 노점상 연구를 제외하고,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인식론을 포함하는 이론논의보다는 정책논의가 압도적이었다. 본 연구의 초점인 인식론에 대한 탐구는 추상적, 현학적이며, 정책적 시사점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다. 로이가 강조하듯이 정책접근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 환원되지 않고, 삶의 방식(ways of knowing)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정책형성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책을 구성하는 지식의 형태들에 주목하는 인식론이 중요하다(Roy, 2005: 156).<sup>3)</sup> 따라서 앞서 도시비공식성에 내포된 공식/비공식부문 이분법에 대한 해체에 주목하는 것은 공공 공간에서 노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 도시정치와 도시계획을 다루는 정부, 전문가들에게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노점상 연구에 있어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도시정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비공식부문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분법을 교란시키고, 비공식성이 공식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형태와 공간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했음을 강조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정체된 노점상 연구에서

3) 도시 비공식성 논의를 주도한 로이(Roy, 2005)의 논문 부제는 “계획의 인식론을 향하여(toward an epistemology of planning)”이다.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노점상과 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정책가의 시선에서 노점상은 공공 공간에서 사라져야할 정책의 대상이었고, 공간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거시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식부문으로부터 배제의 결과로서 노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점상의 도시지리에서 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이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제도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관을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전문가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노점상을 수동적인 객체로서 보는 대중의 인식의 수정을 의도한다.

이하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경제에 관한 기존연구와 국내 노점상과 관련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도시 비공식성을 소개하고, 국외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셋째, 리뷰논문의 특성상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앞서 제시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간략한 사례연구(신설동 풍물시장 설립과정)를 시도한다. 결론에서는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을 논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 2. 비공식경제 연구의 이론적 전개와 국내 노점상 연구의 경향

본 절에서는 도시 비공식성에 대한 연구가 그간 어떻게 진행되어왔으며, 국내의 노점상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노점상은 근대화론의 인식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노점상 연구 또한 1980년대 이론적 논의 이후 선진국과 제3세계를 중심으로 비공식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중요성

을 인식하면서도 둘 사이의 이분법을 충분히 극복할만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공식성에 관한 논의는 하트(Hart, 1973)의 가나(Ghana) 연구를 통한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보고서에 기초한다. 그동안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도시의 비공식부문을 가난한 자들의 사회부적응으로 묘사했고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던 사고와 달리, 하트의 ILO 보고서에서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sup>4)</sup> 용어를 제시하면서 비공식부문을 불완전고용상태(underemployed)에 놓인 다양한 활동들로 규정하고 도시빈민에게 고용과 소득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빈민들을 가난에서 구제해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다(AlSsayad, 2004). 제3세계의 비공식부문의 성장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 하트의 연구는 그 자체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제3세계의 도시연구에 다양하게 적용되었으나 비판 또한 만만치 않았다. 가장 큰 비판은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과 명확하게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는 이원론적 관점이다(강현수, 1995). 이는 곧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에 흡수되어 사라질 것으로 바라본 근대화론의 시각에서 단지 비공식부문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켰다는 것 외에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과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부문을 가난과 직결시켜 도시빈민의 연구를 위한 개념으로만 한정시키는 한계를 보였다(Moser, 1978; AlSsayad, 2004).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과 긴밀한 연관 속에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 비공식부문을 공식부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비공식부문 내의 다양한 비공식성의 정도를 분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낳았다.

4) 부문(sector)적 접근은 하트의 연구가 처음은 아니다. 알샤야드(AlSsayad, 2004: 10)에 따르면 부문 접근은 1960년대 근대화론자인 루이스(Lewis)가 이민자와 그들의 고용형태를 묘사하면서 두 부문모델을 제시한 것과 레이놀드(Reynold)가 국가 부문과 ‘교역-서비스(trade-service)’ 부문으로 구분한 것을 토대로 한다.

국내 연구자들 또한 비공식부문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유사하게 받아들였다. 국내에서 노점상은 도시빈민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면서 초기에는 ILO의 비공식부문론을 중심으로 한 도시빈민연구의 한 갈래로 분석되었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 빈민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도시빈민연구는 1980년대 활성화되었으며 초기논의는 ILO의 초기 비공식부문론을 따라 노점상의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노점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박수영(1982)과 서울특별시(19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86)의 연구를 들 수 있으며 노점상의 긍정적 측면도 함께 제시하면서 노점상의 구체적인 규모와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연구는 이론을 토대로 양적 지표를 사용하여 노점상을 분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초기 비공식부문론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었다(정건화, 1987; 강현수, 1995).

이후 국내 도시빈민연구에서는 비공식부문론의 이원화 경향을 비판하면서 종속이론의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의 침투 과정에서 비공식부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변화론과 생산양식접합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주변화론은 자본주의가 제3세계에 침투하면서 선진국에 의한 종속화와 주변화 과정을 밟아가며 기존의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본축적에서 배제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생산양식접합론은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 배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가 침투하면서 두 생산양식의 접합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강현수, 1995: 53). 1980년대 초반 국내 비공식부문에 관한 연구는 두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조희연(1985)과 윤진호(1984)의 연구에서 각각 주변화론과 생산양식접합론을 중심으로 비공식부문을 유형화하고 있다.

하지만 종속이론에 토대를 둔 주변화론, 생산양식접합론의 공식-비공식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두 이론은 여전히 자본주

의부문과 구분되는 전자본주의 부문을 구체적인 실체로 범주화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강현수, 1995). 뿐만 아니라 ILO의 비공식부문론이나 종속이론계열의 연구들 모두 제3세계의 비공식부문의 증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비공식부문의 확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정건화, 1987; 김차두, 1988). 두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 상대적 과잉인구론은 단순한 부문분석을 넘어 전체 사회구조의 관련성 속에서 빈민의 형성과 특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였다(정건화, 1987; 장재준, 1989; 길태근, 1991). 상대적 과잉인구론의 주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산업예비군을 형성하는 자본의 운동법칙에 기초했을 때,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위해서는 상시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 도시 내 비공식적인 고용형태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이면서 또한 전제조건과 같은 것이다(강현수, 1995: 53). 상대적 과잉인구론의 경우 자본의 동학을 통해서 선진국에서 비공식부문의 형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 추상성으로 인해 비판받았다. 이에 따라 비공식부문의 가족공동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 가족공동체적 생산양식(김차두, 1988), 노점상 문제를 계급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장재준, 1989) 등이 대안적 접근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강정원(1989)은 대구 서문시장의 노점상을 분석하면서 비공식부문론과 생산양식접합론, 소상공생산물(petti commodity production)(Moser, 1976) 등이 비공식경제를 가난과 동일시하는 현상을 비판하였다. 도시빈민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위의 이론들은 비공식부문을 빈곤과 가난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비공식부문으로서 노점상을 들여다보면 노점상 내부의 경제적 특성은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비공식경제이론은 이와 같은 비판들을 받아들여 비공식경제 내의 임금과 소득분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Chen, 2012). 뿐만 아니라 강정원은 노점상과 점포상 간의 상호작용이 노점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의 도시 비공식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하였다. 특히 첵과 제레피(Cheng and Gereffi, 1994)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비공식경제 연구들을 크게 세 부류로 정리하였다. 우선 사회적 주변성 접근(social marginality approach)은 하트의 ILO 보고서를 기반으로 비공식부문론에 입각하여 저발전 국가의 비공식성을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의 결과로 여기는 한편, 비공식부문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접근법이다(Rakoski, 1994).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이분법적으로 간주한다는 점, 비공식부문을 하나의 동일한 실체로 이해함으로써 내부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 비공식부문을 가난이나 빈곤, 한계적 상황, 골칫거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한편 다른 유형의 접근방식은 카스텔(Castells)과 포르테(Portes) 등이 주장하는 국가 규제적 접근(state regulation approach)이다. 국가 규제적 접근은 사회적 주변성 접근이 가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이분법을 비판하는 동시에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경제가 선진국에서 활성화되는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Castells and Portes, 1989). 국가 규제적 접근에 따르면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여 비합법적 고용, 다양한 형태의 탈세시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가난이나 빈곤, 한계계층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강정원의 비판과 마찬가지로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걸쳐있기 때문에 비공식부문을 가난한 자들의 사회적 재생산 방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소득창출활동’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강현수, 1995). 비공식경제에 속한 사람들 중 고용자는 상대적으로 피고용자에 비해 높은 소득수준을 얻으며, 무급가족종사자나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소득을 올린다(Chen, 2012). 따라서 비공식경제는 인종, 민족, 종교

등 특정한 사회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규제적 접근은 사센(Saskia Sassen)이나 프리드만(John Friedmann) 등의 세계도시 연구자들의 주장 및 분석을 통해 세계도시의 제3세계적 특성을 설명한다. 즉 자본주의의 구조재편과정에서 특정 도시에 다양한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고차노동력을 지닌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차노동력을 활용한 서비스부문이 활성화되는데 국가가 이들의 활동을 여러 방식으로 규제할 경우 직면하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비공식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첵과 제레피가 언급한 소기업접근(small-firm approach)은 유연적 전문화론과 유사하게 자본주의 생산방식변화에 따른 경제행위의 특성변화에 주목한다. 소기업 접근의 장점은 비공식부문이나 비공식경제 내에 내포된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공식/비공식의 관계를 경제적 행위의 조정방식(coordination)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Cheng and Gereffi, 1994). 그러나 이 경우 드 소토(De Soto, 1989)의 주장처럼 소규모 기업들이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들을 창조적 기업가로 해석함으로써 자유시장의 논리를 옹호하고 비공식적 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한계들(하청증가에 따른 불안정성과 규제회피에 따른 전략적 선택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Rakoski, 1994). 뿐만 아니라 제도학과 경제지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규모 기업 간의 비공식적인 연계는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 혹은 지역특수적인 제도적, 상황적 맥락에 기초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사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Giuliani, 2007; Sunley, 2008). 오히려 소기업접근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경제행위를 통한 가치창출방식에서 비공식적인 경제형태가 갖는 중요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공식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광의의 비공식 부문론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공식/비공식의 이분법적 분할과 비공식을 가난, 빈곤 등의 골칫거

리(nuisance)로 간주하는 특성, 비공식 내의 다양성, 공식-비공식 간의 긴밀한 관계의 간과 등은 종속이론계열, 선진도시의 제3세계화, 국가규제적 접근, 소기업접근 등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극복되었다. 이는 최근의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들을 중심으로 ILO의 비공식부문론을 개선하고자 한다(Chen, 2012; Meagher, 2013). 특히 정의의 측면에서 하트(Hart, 1972)가 언급한 비공식부문은 법적규제가 비공식부문의 특징<sup>5)</sup>으로서 언급되어 있지만 비공식부문은 대체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enterprise) 중심의 분류이기 때문에 공식경제에서 일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않는 노동자(worker)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최근 연구들은 비공식부문 개념을 대체하여 기업과 노동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비공식경제를 주된 개념으로 사용한다. 특히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간의 긴밀한 관계를 중시한다. 공식경제의 운용을 위해서는 비공식경제적 요소(하청, 시간제 근로자, 저임금노동 등)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구적 가치사슬의 운용에 있어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비공식경제가 한계적이고 주변적이면서 공식부문과 구분될 수 있는 특정한 부문이 아니라 전체 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Chen, 2012).

비공식경제 연구가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관계(linkage)를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는 여전히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를 개별적인 실체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로이가 주장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공식-비공식의 분할(divide)을 통해서 비공식부문이나 비공식경제가 영역 분할(슬럼과 고급주거지), 노동 분할(저임금 노동과 고임금 노동), 정부에 의한 정책도구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한다(McFarlane, 2012). 첸(Chen, 2012)의 주장처럼 경제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비공식경제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요소가 필수적인지는 끊임없

5) 비공식부문은 쉬운 진입, 토착자원예외 의존, 기업의 가족소유, 소규모 경영, 노동집약적이고 적응적 기술(adapted technology), 공식적인 학교교육체계 밖에서 배운 기술, 비규제적이면서 경쟁적 시장의 7가지 특징을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이 변하기 때문에 공식과 비공식을 고정된 각각의 실체로 이해할 수는 없다.

국외에서는 최근까지 비공식성에 관해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연구는 1980년대의 이론적 연구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노점상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점상과 관련된 기존의 이론논의는 상대적 과잉인구론과 이후의 추가적인 이론적 시도 이후로 거의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노점상을 다룬 1980년대 연구가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 비공식부문이 형성된 원인과 그 과정을 파악하려 하였다면, 1990년대 이후의 논의들은 대체로 노점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2001; 정원오, 1990; 홍인옥, 1999; 김준연,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2001)의 경우 서울시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1984)의 연구를 이어받아 노점상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점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노점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론들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준에서 노점상과 관계를 맺는 여러 행위자들과 구조를 함께 파악하기보다는 노점상을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김수현(2000), 김건식(2000)의 연구에서도 당국의 노점상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점상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원칙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앞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인식론적 한계를 지녔다.

1990년대 이후 노점상 관련 논의들이 제시하는 정책은 노점상을 공식 부문과 분리하여 사고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식부문으로 편입시키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1980년대의 이론적 분석들이 근대화론의 시각에서 도시의 비공식부문과 노점상을 사회의 병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을 극복하고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존

재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연구들은 이론적 논의에 대한 진전이 부족한 상태로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는데 더욱 더 집중하는 경향을 지울 수 없다. 다만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개념(김용창, 2009; 강현수, 2010)이나 신자유주의 도시화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으로서 도시 인클로저(urban encloser)에 대한 검토(김용창, 2015)는 이런 논의들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된다. 특히 이 개념들은 로이의 비공식성 개념과 무관하지 않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을 살펴보고 비공식성의 몇 가지 연구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도입: 이론적 논의와 관련 해외사례연구

최근 로이나 알사야드를 비롯해 최근 지리학과 도시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들은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를 섹터로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보다는, 그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인식하고, 도시 비공식성 내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가령, 도시 비공식성의 관점에서 비공식 경제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공식 경제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가지지만 (Brown, 2008), 이러한 이분법적 공식은 항상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공식적인 경제활동들은 ‘다양한 정도의 비공식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ross, 2000).<sup>6)</sup> 이러한 이해는 기존 논의에서의 비공식/공식, 개도

6) 로이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도시 비공식성(urban informality) 개념을 사용한 것은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분법을 교란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비공식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지, 도시 자체를 대안적 공간 개념으로 간주했던 것은 아니다

국/선진국, 중심/주변, 빈민/엘리트 등의 이분법에 의문을 던지고, 비공식 경제 활동은 경제단계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소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을 요청한다.

도시 비공식성의 관점에 의거했을 때 특정한 경제활동은 영구적으로 비공식 혹은 공식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며, 특히 국가가 정책이나 공권력을 통해 특정한 경제활동을 합법화 또는 불법화하거나, 묵인 혹은 추방함으로써 비공식성을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Roy, 2005). 다시 말해 도시 비공식성은 주권의 포섭과 배제의 기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노점상이나 무허가 주택 같은 비공식 경제에 대한 도시 정책 역시 그러한 기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도시 정책에서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은 비공식 경제와 연결된 여러 행위자와 다중스케일적인 과정들을 공간적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한편 이러한 시각은 도시 비공식 경제에 몸을 담고 있는 행위자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바야트(Bayat, 2004)는 도시 비공식성과 관련해 도시 빈민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수동적인 행위자 혹은 지나치게 희생자적인 관점으로 묘사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조용한 잠식(quiet encroachment of the ordinary)’의 역동성에 주목한다. 이는 “조용하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대항해 스스로 생존과 삶의 개선을 위해서 일어나는 방대한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ibid, 90). 이를 통해 도시 빈민들은 각종 사회적 재화들과 기회를 획득하며 국가나 제도로부터 자율권을 얻고자 한다(ibid, 93). 이처럼

(Roy, 2005: 148). 도시 비공식성의 도시를 강조할 경우 이는 자칫 ‘도시=비공식성의 대안적인 공간’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에 진보적 공간연구자들이 전통적인 도시/농촌 이분법을 문제시하면서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Merrifield, 2013; Brenner, 2013)를 제창하는 맥락과 연관시키면 많은 경우 비공식 경제가 활발히 진행되는 공간이 도시임을 감안할 때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정치적 역량을 이론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재이론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려하며 도시 비공식성을 “다양한 경제와 다양한 공간들을 서로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도시화의 양식(mode of urbanization)’으로서 이해할 때(Roy, 2005: 148), 비공식 경제는 각 도시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노점상에 대한 이론적인 틀 역시 한층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라는 구조적 변동 속에서 각 지역은 어떻게 상이하게 도시 비공식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도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시 비공식성의 인식론에 바탕을 두어 세 가지 해외사례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개할 연구로 다니엘스(Daniels, 2004)는 비공식경제와 공식경제는 매끈하게 나뉘어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비공식적이라고 여겨지는 경제활동들이 많은 경우 공식 경제라고 이어지는 활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가정에서 생산되는 상품처럼 공급망이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생산된 상품이 유통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공식적인 경로로 생산되었다고 할지라도 노점상과 같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서 불법 다운로드나 해적판 CD는 지적 재산권의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토대는 많은 경우 공식 경제에 있으며, 이러한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 경우 공식 경제의 경로를 통해서 소비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 사이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마약산업의 경우 불법적인 성격과 폭력과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비공식 경제의 개념 내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분명 공식 경제는 아니지만, 고도의 조직성을 보이며, 특히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기존 은행의 금융망처럼 고차적인 공식 경제의 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스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는 단선적인 개발 과정의 하위 단계에

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며, 발전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경제권 내에서도 어렵지 않게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비공식 경제 활동이 공식 경제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경쟁력 면에서 필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록 비공식 경제의 존재가 직접적인 세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개인의 삶과 도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공식 경제 활동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궁극적으로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경제활동이 도시와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목표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거시적인 시야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세계화의 맥락에서 공식-비공식 경제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세계도시들 사이의 연결도 살펴보면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도시 스케일에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연구로, 에츨드(Etzold, 2014)는 방글라데시 다카(Dhaka)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에 주목하면서 초-로컬적인(trans-local) 이주민들에 의한 도시 공간의 생성 과정에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 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주한 노점상들은 로컬 스케일과 초-로컬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장소(their place)’를 만들고, 기존의 도시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켜 ‘전이하는 도시 공간(transient urban space)’을 생산하는데 주목한다. 가령, 단순 보행로로 여겨지는 거리는 노점상의 존재로 인해서 멈춤의 공간 혹은 소비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이때 노점상들은 단순한 도시 빈민이나, 수동적인 주체로 이해되지 않고, 도시 공간의 형성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이해된다. 즉, ‘평범한 이들의 조용한 잠식’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엘리트 중심적인 도시공간 형성과정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아래로부터의 도시공간의 생산과정에 주목한다. 이민자 노점상들은 정책 입안자들과 같은 엘리트층처럼 도시 공간의 물리적 구조와 형태를 거시적인 규모에서 바꾸기는 어렵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통해 장소가 가지는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 노점상을 단순히 비공식 부문으로 획일화시키지 않고, 판매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비공식의 정도가 존재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가령, 노점상을 관리하는 당국 관계자들과의 친분이나 뇌물을 통해서 이들의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에서의 입지를 굳히기도 하며, 출신 지역에서부터 비롯되는 초-로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 자리를 얻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이주민 노점상들은 단순히 노점상으로 일반화되지 않고, 개개인이 가진 사회적 자본들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로컬에 뿌리내리는 정도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수준의 비공식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끝으로 조영지(Cho, 2015)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인 치아파스 주 산크리스토발데라까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에서 원주민 여성 노점상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도시 비공식성의 개념을 젠더의 문제와 관련시켜 접근하고 있다. 에츨드와 유사하게 우선 도시 비공식성에 다양한 정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노점상의 공간적인 측면과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유형의 비공식성을 가지는 상업활동이 확인된다. 첫째, 거리에서 장사하는 행상들로 이동성이 높고 규모와 자본이 영세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을 보였다. 둘째, 공예품 박람회 상인들로, 여름 성수기 동안 시청 앞 광장에서 장사를 한다. 상업 활동의 기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으나, 규모가 행상에 비해 커지면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상보다 공식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셋째, 지역 성당 앞 공원을 무단점거해서 형성된 야외 시장으로, 연중 열리며 정부로부터 일종의 허가를 받고 있지만, 때로 철거의 위협이 존재하며, 매일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비공식성을 보였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은 행상이나 박람회 상인들보다 시장에서의 활동기간이 길고, 가족과 친지들로 인한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는 점, 행상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행상이나 박람회 상인에 비해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다. 네 번째는 과자와

공예품을 파는 건물에서 영업하는 시장 상인들로 공식 경제에 가까우며, 거리의 상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자본을 획득함에 따라 노점상에서 본 시장으로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연구는 공간적인 차이를 가진 다양한 정도의 비공식성과 젠더 간의 상관성을 확인했다. 노점상 활동이 전반적으로 여성화되었지만, 행상에서 박람회, 야외시장, 실내시장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떨어졌다. 즉, 여성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을 갖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여성 노점상들이 더 높은 비공식성에 노출되는 원인에 대해 사례 지역과 이에 중첩되어 있는 다양한 스케일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지는 보편적인 취약성, 멕시코의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 시장 재구성, 치아파스 원주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노동 분담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 남성 에 비해 여성들의 다른 직종과 공식적 고용에서의 기회/경험의 부족, 2) 국가 혹은 지구적 스케일에서 이주의 증가와 상대적인 여성들의 이동성의 제약, 3) 특정 노점행위와 노점상 일터가 남성적/여성적인 것으로서 구성되는 과정, 4) 여성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의무와 같은 요인들이 개입됨을 확인했다.

위에서 언급된 세 사례 연구들은 노점상과 비공식 경제에 대한 이분법적인 인식을 지양하고, 이러한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자들과 그 지역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비공식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다니엘스의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에 대한 대중과 정책가들의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니엘스는 정부의 입장에서 노점상은 세수의 감소를 야기하는 불법적 상행위자로 볼 수 있지만, 노점상이 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취약한 국가경제 상황에서는 노점상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도시경제를 떠받치는 한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점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

도 환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노점상을 세수나 도시미관의 기준으로만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득실을 파악하려는 현재의 접근이 매우 협소함을 확인시켜준다.

최근의 도시 비공식성 개념에 기반을 둔 연구들이 주로 제3세계 도시들에 치중하여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유용성을 한국 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조성과정을 중심으로 간략한 사례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 4. 사례연구: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조성과정<sup>7)</sup>

본 절에서는 첫째, 노점상의 영업활동 공간에서 서울시가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로 야기된 갈등을 살펴봄으로써 노점상을 공식경제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비공식경제로서 접근하는 것의 한계를 확인한다. 둘째, 이러한 갈등을 둘러싼 노점상과 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을 파악함으로써 맥락구체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늘날 신설동 서울풍물시장은 서울시에서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속적 투자”(서울풍물 시장 홈페이지)를 하고 있는 서울의 공식적인 경제경관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식과 달리 서울풍물시장의 조성과정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이분법을 교란하는 노점상, 서울시, 서울시장,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갈등, 경합, 절충의 산물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직후 서울시는 2003년 7월부터 복원공사에 착수하였다. 공사구간 일부에는 황학동 풍물시장이 있었고, 도로 위에서

7) 본 절은 황진태(2010: 5장)에서 상당 부분을 활용했음을 밝힌다.

는 노점상인들이 영업을 하였다. 법적으로 도로 위 노점상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노점상인 약 1,500명은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서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된다. 결국, 서울시는 노점상인들에게 인근 동대문운동장에 풍물시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2004년 1월부터 황학동 노점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옮겨져 영업을 시작한다. 당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은 노점상인들에게 동대문운동장을 안정적인 상업활동공간으로 믿게끔 하였지만(인터뷰 A), 이명박 시장은 정치적 사활을 걸었던 청계천 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일시적 대책으로 동대문운동장을 고려했을 뿐이었다(이명박, 2005: 135). 이 사례를 통해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즉, 법적으로는 노점상이 불법으로 여겨지더라도, 생존논리를 내세운 노점상과 서울시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갈등, 경합,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는 공식경제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동대문운동장을 노점상에게 제공하였고, 노점상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영업공간이었던 도로 위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서울시와의 경합을 거치면서 시정부가 보장하는 공식적인 경제공간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시장의 후임인 오세훈이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동대문운동장에서 도심 메가 프로젝트(mega-project)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고려하면서 동대문운동장에서 영업을 하던 황학동 노점상인들의 생업공간은 또 다시 위태로워졌다(Hwang, 2014: 86~87). 그리하여 풍물시장 노점상인들은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서울시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인수위원회와 면담이 가능해졌고, 인수위로부터 “대책 없이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인수위에서 논의된 합의는

인수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면서 파기했고, 서울시와 풍물 시장 노점상 간 관계는 다시 경색된다. 신임 서울시장의 공약을 서둘러 시행해야했던 서울시는 노점상 대표 5명과 서울시 간부 5명이 참가한 동대문운동장 발전협의회 회의를 비공개로 두 차례 가진다. 협의회를 구성한 서울시의 목적은 노점상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동대문운동장 철거과정에서 최대한 갈등을 피하고, 형식적인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회의에서 서울시는 노점상 측의 철거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철거의 논리만을 강변하였다(최인기, 2008: 163~164). 이러한 형식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였던 발전협의회 활동은 서울시가 노점상인들과 ‘1500번, 3000여 명’을 만나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언론에 유포되었다. 이렇게 서울시의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를 활용한 전략은 이미 이명박 시장시절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서울시, 노점상,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청계천복원시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점상인들 간의 분열을 야기하고, 복원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인터뷰 A; 황진태, 2008: 223~224).

한편, 서울시의 사업추진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찬반세력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2007년 7월, 서울시가 공식적인 철거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거반대세력들은 좀 더 단일한 반대활동을 위하여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와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설립하고,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반대하는 100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공대위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부담을 갖게 된 서울시는 다음날 21일 동대문운동장 내의 풍물시장 상인들을 이전시킬 대책으로 신설동 송인여중 부지를 제시한다. 서울시의 대체부지 제안은 공대위 차원에서의 경합의 산물로 볼 수 있다.<sup>8)</sup> 그러나 대체부지 제안은

8) 그러나 100인 선언 이전부터 서울시청 내부에서 송인여중 부지를 계획해 놓았다고 한다(인터뷰 C). 서울시 내부자료(2009년 8월 입수)에 따르면 2007년 7월 25일에 이미 송인여중 부지를 얻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용지 사용협의

철거반대세력에게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기본적인 전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부지 제안을 온전히 철거반대세력의 승전물로 간주할 수도 없었다(인터뷰 B).

서울시는 8월 21일 밀실단독회담에서 자치위원장 한 모 씨에게 시장 이전을 합의하도록 하였다.<sup>9)</sup> 그 동안 한 모 씨를 비롯한 자치위원회가 저지른 동대문풍물시장에서의 각종 이권사업을 둘러싼 비리와 폭력사건을 묵인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한 모 씨에게 이전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전국노점상연합(이하 전노련)이 인정한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전에 합의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풍물시장 상인들은 자치위원회가 대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위원회 간 합의는 무효라고 반박하였다. 전노련의 고질적인 관료화와 비리문제를 비판하면서 출범한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전노련이 풍물시장 자치위원회를 암암리에 지원하면서 운동장 사수보다는 운동장 이전을 위한 해결사로 전락하고 있음을 비판했다(빈민해방실천연대 홈페이지). 사수 대책위는 임시총회를 열어 서울시와 자치위원회 간 합의는 무효이며, 운동장 현자리 사수, 자치위원회 해산을 결의하고 전노련을 방문하였지만 그 동안 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했었던 전노련은 자치위원회의 이전합의를 지지하면서 사수대책위의 저항동력은 약화된다(빈민해방실천연대 홈페이지). 이렇게 서울시와 자치위원회 간 이전합의를 계기로 공대위를 통한 전노련과 시민단체 간의 결속은 분열되었다. 결정적으로 전노련은 신설동 시장 이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이전합의를 이루었고, 신

---

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9) 황학동 노점상들이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하면서 풍물시장의 대표기구로 자치위원회가 결성된다. 자치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풍물시장의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하면서 다른 노점상들과 갈등을 야기했다. 특히,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시장 이전조건으로 제시했었던 동대문운동장에 차양막, 전기시설, 수도시설, 화장실, 견인주차장의 설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점상 스스로 차양막 설치비용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위원회의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그러한 비리의혹을 제기한 노점상들과 자치위원회 간 폭력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설동 서울풍물시장으로 노점상들이 이전하게 된다.<sup>10)</sup>

신설동 풍물시장 조성과정 사례를 통하여 도시 비공식성 논의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점상을 공식경제 부문으로부터 독립된 비공식경제로서 접근하는 것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청계천 복원사업,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 등의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의하여 노점상들이 영업공간으로부터 쫓겨날 상황에 직면하면서 서울시와의 다양한 갈등, 경합, 절충의 과정을 통하여 노점상들은 도로 상의 비공식경제경관으로부터 좀 더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경제경관(동대문운동장과 신설동 송인여중 부지에 풍물시장 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노점상을 법적으로 규정된 도로 위 불법적인 경제주체로 간주하기보다는 다양한 제도적 수단(‘동대문운동장 발전협의회’라는 거버넌스 기제, 서울시 주관하의 시장 이전 찬반투표 등)을 활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고, 노점상들은 서울시의 협의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공식/비공식부문의 경계가 교란되었음을 확인했다.

둘째, 노점상을 이해하는 데에 노점상과 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에 주목해야 함을 확인했다. 기존의 노점상을 ‘도로 위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존재’로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공간적 실천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청계천 복원과 동대문운동장 메가프로젝트는 서울시와 노점상 간의 특정 공간을 둘러싼 경합을 촉발시켰다. 노점상은 비록 불법적이더라도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던 공간의 입지를 활용하여 단순히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순응하여, 퇴거되기보다는 다양한 실천들(시민단체나 전노련 등과의 연대 등)을

10) 투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투표 전 공청회, 토론회 등의 과정이 전무했고, 시장이전을 반대하는 사수위 회원들의 투표를 막았다. 투표장소는 전노련이 지원했던 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배석한 상태에서 비밀투표가 아닌 투표자의 투표행위를 간부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동대문풍물시장 사수대책위, 2008). 투표 결과, 680명이 투표하여 599명이 찬성하였고, 서울시는 시장이전을 정당화하게 된다.

발판삼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점상을 공공 공간에서 사라져야할 정책의 대상, 공식경제로부터 배제된 수동적 객체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둘러싼 맥락적, 공간적 이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첫째, 1980년대 노점상의 급격한 양적 증가에 조용하여 국내 노점상 연구가 활발해졌지만, 이들 연구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둘 사이의 이분법을 충분히 극복할만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했다. 둘째, 대안적으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을 통하여 비공식부문이 공식부문을 비롯한 상이한 경제, 공간들과 상호 연결되었음을 인식론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해외사례들을 소개했다. 끝으로 앞선 이론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조성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기존 노점상 연구에 내재된 강고한 공식/비공식부문의 이분법을 넘어서, 비공식성이 공식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형태와 공간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했음을 인식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실천적으로는 노점상이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들의 경제경관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행위자임을 밝힘으로써 노점상들에게 새겨진 사회정치적 낙인과 만연한 패배주의를 일소시키고자 했다. 셋째, 정책적으로는 공공공간에서 노점상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도시정부와 도시계획가들은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던 시각인 노점상을 관리해야할 대상 혹은 도시빈민으로의 일면적 규정은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하고, 이들을 좀 더 t평적인 대화의 상대로서 접근해야함을 확인했다.

근자에 “공식부문의 비공식화”(최인기, 2012)가 심화되는 존재론적 변화는 과거 일부 노점상 연구자들이 예측했었던 비공식부문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선부른 예언을 기각시켰다. 일부 제1세계 혹은 압도적으로 제3세계를 대상으로 논의되어왔었던 도시 비공식성 논의는 앞으로 동아시아 발전주의적 도시화의 맥락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도시 비공식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도시 폐기물(박효진, 2012), 우버(uber) 택시 등 공식부문과 무관해보였던 비공식부문의 의제들이 어떻게 공간적, 비공간적으로 공식/비공식부문의 이분법을 교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남아있다.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갈등 해소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도시계획 및 정책가들에게도 중요한 화두로 삼을 필요가 있다.

원고접수일: 2015년 8월 25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14일

최종원고접수일: 2015년 9월 22일

❖ Abstract

The implications of discussion of urban informality  
for street vendor research

Hwang, Jin-Tae·Kwon, Kyusang·Cho, Youngji

This paper criticizes the formal-informal dichotomy in previous studies on street vending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he concept of urban informality which emphasizes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First, we argue that street vending research in Korea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at informality is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economies and spaces. Second, street vending should be understood in a concrete actor and space-oriented context. For policy makers, street vending is something to be ousted from the public space, whereas for researchers it is the necessary result of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structures which have excluded vendors from the formal sector. We focus on the proactive role of street vendors in creating a landscap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various actors and institutions in a place. This perspective can lead to a change in the way urban planners and city government officials regard street vendors as passive and marginal actors.

Keywords: urban informality, informal sector, informal economy, developmental urbanization, street vendor

## 참고문헌

- 강정원. 1989. 『노점상의 특성과 사회관계에 관한 일연구: 대구시 서문시장 노점상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수. 1995. 『도시 비공식 부문 이론의 새로운 전개와 우리나라 대도시 연구에 대한 함의』. 《국토계획》 제31권 제2호, 51~69쪽.
- \_\_\_\_\_.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길태근. 1992. 『도시빈민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건식. 2000. 『노점상 정책의 비판적 검토』. 《도시와빈곤》 제47권, 5~18쪽.
- 김수현. 2000. 『노점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도시와빈곤》 제47권, 28~40쪽.
- 김용창. 2009.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창작과 비평》 제37권 2호, 339~353쪽.
- \_\_\_\_\_. 2015.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4호, 431~449쪽.
- 김준연. 2000. 『도시 노점상의 실태와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안산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희. 2011.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80년대 노점상운동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제36권, 66~102쪽.
- 김차두. 1988. 『도시비공식부문 연구의 과제와 전망』. 《상경연구》 제3권, 79~93쪽.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2014. 『내부자료』.
- 박수영. 1982. 『도시가로경제부문의 사회·경제적 기능』. 《도시문제》 제17권 제7호, 31~45쪽.
- 박효진. 2012. 『경계물로서의 쓰레기: 고물상들의 경험과 해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 2001.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 모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특별시. 1984. 『서울시 가로경제부문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 엄찬윤·김승현. 2010. 『노점상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이 공간인식 분석』. 《한국언론학보》 54권 제3호, 255~275쪽.
- 윤진호. 1985. 『도시비공식부문』, 이대근·정운영 공편.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 윤찬영. 1988. 『한국도시빈민의 성격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적 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4권, 61~83쪽.

- 이명박. 2005.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랜덤하우스중앙.
- 장재준. 1989. 『도시노점상의 계급성에 관한 일 연구』. 《역사와사회》 제29권, 133~188쪽.
- 정건화. 1987. 『한국의 도시빈민의 형성 및 존재형태에 관한 일연구: 도시비공식부문을 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오. 1990. 『노점상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연. 1985. 『종속적 산업화와 비공식부문』. 박현채 외. 『한국 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 주간경향. 2014. 『노점과의 공존, 안 되는 걸까』. 1104호.
- 최인기. 2008.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과 사회적 합의』. 《진보평론》 제35권, 158~168쪽.
- \_\_\_\_\_. 2012. 『가난의 시대』. 동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6. 『도시비공식부문에 관한연구: 부산시 노점상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홍인옥. 1999.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도시연구》 제5권, 37~59쪽.
- 황진태. 2008. 『거버넌스와 직접민주정치의 이중전략 모색』. 《진보평론》 제35권, 218~237쪽.
- \_\_\_\_\_. 2010. 『지역성장연합과 스케일의 정치가 세계도시 서울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진태·박배균. 2012. 『세계도시 형성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싱가포르의 세계도시 전략을 사례로』.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73~59쪽.
- AlSayyad, N. 2004. "Urban Informality as a 'New' Way of Life." In A. Roy & N. AlSayyad (Eds.),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pp. 7~32), Lanham, Md.: Lexington Books.
- AlSayyad, N., & Roy, A. 2004. "Urban informality: crossing borders." In A. Roy & N. AlSayyad (Eds.),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pp. 1~6), Lanham, Md.: Lexington Books.
- Bayat, A. 2004. "Globalization and the politics of the informals in the Global South." In A. Roy & N. AlSayyad (Eds.), *Urban informality: Transnational perspectives from the Middle East, Latin America, and South Asia* (pp. 79~102), Lanham, Md.: Lexington Books.
- Brenner, N. 2013. "Theses on urbanization." *Public Culture*, 25, pp. 85~114.
- Brown, A. 2006. "Challenging street livelihoods." In A. Brown (Ed.), *Contested space: Street trading, public space, and livelihoods in developing cities* (pp. 3~16), Rugby, UK: ITDG

Pub.

- Castells, M. & A. Portes. 1989. "World underneath: the origins, dynamics and effects of the informal economy." In A. Portes, M. Castells & L. A. Benton (eds.). 1989. *The informal economy: studies in advanced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pp. 11~38),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hen, M. A. 2012. *The Informal Economy: Definitions, Theories and Policies*. WIEGO Working Paper No.1.
- Cheng, L., & G. Gereffi. 1994. "The informal economy in East Asian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8(2), pp. 194~219.
- Cho, Y. 2015. *Geography, gender, and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A case study of street vending in San Cristóbal de Las Casas, Mexico*.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ross, J. 2000. "Street vendors, and postmodernity: conflict and compromise in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1/2), pp. 29~51.
- Daniels, P. W. 2004. "Urban challenges: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ies in mega-cities." *Cities*, 21(6), pp. 501~511.
- De Soto, H. 1989. *The other path: The invisible revolution in the Third World*. London: I. B. Taurus.
- Etzold, B. 2014. "Migration, informal labour and (trans)local productions of urban space: the case of Dhaka's street food vendors." *Population, Space and Place*, doi: 10.1002/psp.1893.
- Ghertner, D. A. 2008. "An analysis of new legal discourse behind Delhi's slum demolition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3(20), pp. 57~66.
- Giuliani, E. 2007. "The selective nature of knowledge networks in clusters: evidence from the wine industr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7(2), pp. 139~168.
- Hart, K. 1970. "Small scale entrepreneurs in Ghana and development planning."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6(4), pp. 104~120.
- \_\_\_\_\_. 1973. "Informal income opportunities and urban employment in Ghana."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11(1), pp. 61~89.
- Hill, R. & Kim, J. W. 2000. "Global cities and developmental states: New York, Tokyo and Seoul." *Urban Studies*, 37(12), pp. 2167~2195.
- Hwang, J. T. 2014. "Territorialized urban mega-projects beyond global convergence: the case of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Project, Seoul." *Cities*, 40, pp. 82~89.
- McFarlane, C. 2012. "Rethinking Informality: Politics, Crisis, and the City." *Planning Theory & Practice*, 13(1), pp. 89~108.
- Meagher, K. 2013. *Unlocking the Informal Economy: A Literature Review on Linkages Between Formal and Informal Economies in Developing Countries*, WIEGO

Working Paper No.27.

- Merrifield, A. 2013. "The urban question under planetary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pp. 909~922.
- Moser, C. O. N. 1978. "Informal Sector or Petty Commodity Production: Dualism or Dependence in Urb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6(9), pp. 1041~1064.
- Rakowski, C. A. 1994.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the Informal Sector Debate: A Focus on Latin America, 1984~92." *World Development*, 22(4), pp. 501~516.
- Roy, A. 2005. "Urban informality: toward an epistemology of planning."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1(2), pp. 147~158.
- \_\_\_\_\_. 2009. "Why India cannot plan its cities: Informality, insurgence and the idiom of urbanization." *Planning Theory*, 8(1), pp. 76~87.
- \_\_\_\_\_. 2011. "Slumdog cities: Rethinking subaltern urb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5(2), pp. 223~238.
- Sunley, P. 2008. "Relational economic geography: A partial understanding or a new paradigm?" *Economic Geography*, 84(1), pp. 1~26.
- Tokman, V. E. 1978. "An exploration into the nature of informal-formal sector relationships." *World Development*, 6(9), pp. 1065~1075.

인터뷰:

- A: 전국노점상연합 정책교육위원장 2009년 8월 27일.  
B: 동대문운동장철거반대와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2009년 9월 9일.  
C: 서울시 동대문디자인파크 담당관 사업지원팀장 2009년 8월 12일.

홈페이지:

- 빈민해방실천연대: [http://cafe251.daum.net/\\_c21\\_/home?gclid=18rPw](http://cafe251.daum.net/_c21_/home?gclid=18rPw).  
서울풍물시장: <http://pungmul.seoul.go.kr/about/vision.jsp>.